

#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

강신욱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이현주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김석호(성균관대학교)

2012. 9. 14.

# 1. 서론

# 문제제기

-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
- 사회통합 제고 요인과 저해 요인을 지지/통제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
- 사회통합 지표체계 구축 작업
  - ▶ 노대명 외(2010),『한국의 사회통합지표연구』
  - ▶ 강신욱 외(2011),『한국의 사회통합지표연구 II.』
-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영역별 지수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
  - ▶ 사회적 결속(력), 안정성, 형평성 등의 3 영역
  - ▶ 영역별 지표(indicators)의 정보를 단일한 지수(index)값으로 표현

# 종합지수 산출의 두 측면

- 지표체계를 종합지수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장,단점이 존재
- 장점
  - ▶ 종합적 상태에 대한 직관적 이해나 비교가 편함
  - ▶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에 용이
- 단점
  - ▶ 다차원적 정보를 단일 차원의 정보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
  - ▶ 방법론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지수작성, 발표의 효과 반감
  - ▶ 서열화에 따른 부담으로 비교 대상 단위들의 수용성 논란
- 영역별 지수의 작성은 절충적 선택
- 시험적 개발을 통해 향후 다양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

## 2. 이론적 검토

# 국내의 사회통합 관련 지표(지수)

- 노대명 외(2009)
  - ▶ 소득, 고용, 금융, 교육, 건강, 주거, 가족 등 영역
- 삼성경제연구소(2009) 사회적 자본 지수 중
  - ▶ 사회갈등 지수 = 지니계수/0.5\*(민주주의 지수+정부효과성지수)
- 박명호 외(2011) 경제사회발전지표 중 사회통합지수
  - ▶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+ 관용사회, 신뢰받는 정부
- 박은희(2009) 지역사회통합지수
  - ▶ 사회적 안정성, 응집성, 포용성, 역동성
- 이현주 외(2011) 지역 사회통합지수
  - ▶ 안정성, 형평성, 지속가능성, 응집성 등 지표 이용

# 해외의 사회통합 관련 지표체계

- OECD의 사회지표(social indicators)체계
  - ▶ 자족, 형평, 건강, 사회통합 x 사회적 배경, 상태, 대응
- Berger-Schmitt(2000)의 사회통합 지표
  - ▶ 격차 및 사회적 배제 축소, 사회적 자본 강화
- Valcos 사회통합지수
  - ▶ 기관에 대한 신뢰, 연대, 정치적 참여, 사회문화적 참여, 형식적 관계, 실질적 관계

# 『사회통합지표연구 I』의 지표체계(1)

- 사회통합에 대한 공통된 이해 방식에 기초
- 사회통합 상태지표와 조건지표로 구분
  - ▶ 상태지표: 신뢰, 귀속감과 참여
  - ▶ 조건지표: 세부 영역별 절대적 박탈, 상대적 격차
- 지수화, 국가별 비교를 전제로 하지 않은 지표체계

## 사회통합 상태지표

	주관적 요소 (사람의 마음 상태)	객관적 요소 (행동적 표출)
시민사회 통합	. 시민에 대한 일반 신뢰 . 다른 사회집단의 사람을 포함한, 동료시민과 협력 및 도움에 의지 . 소속감 혹은 정체성	. 사회참여와 시민사회의 활력 . 자원봉사 및 기부 . 주요 집단간 연합 및 괴리의 여부
시민사회- 정부 통합	. 공적 인물에 대한 신뢰 . 정치 및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. 소속감 혹은 정체성	. 정치참여(투표, 정당 등)

노대명 외(2010)



# 『사회통합지표연구 I』의 지표체계(2)

## 사회통합 조건지표

구 분		절대적 박탈	상대적 격차
기본 지표	소 득	.빈곤율 .근로빈곤율(또는 취업빈곤율) .박탈지수(*)	.소득배율(5분위 소득격차) .중산층 비중(*)
	고 용	.실업률 .저임금(저소득)근로자 비율	.비정규직근로자 비율 .성별/학력별/규모별 임금격차
	교 육	.학교진학률/미진학률 .중도탈락학생 비율	.사교육비 격차(*) .소득계층별 학업성취도 격차(*)
	건 강	.의료소외층(*) .의료비 과부담가구 비율(*)	.소득계층별 질환발생율(*) .소득계층별 건강보험 자부담금액(*)
	주 거	.주거상실계층 비율(*) .자산빈곤율(*)	.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(*) .소득계층별 자산격차(*)
추가 검토 지표	가 족	.이혼율 .자살률	.소득계층별 이혼율(*) .소득계층별 자살률(*)
	금 융	.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(*) .부채상환 연체율(*)	.소득계층별 부채비율(*) .소득계층별 부채상환 연체율(*)
	정 보	.인터넷미활용인구 비율	.소득계층별 인터넷미활용인구 비율(*)

노대명 외(2010)

# 『사회통합지표연구 II』의 지표체계

-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영역을 염두에 둔 지표체계
  - ▶ 3개 갈등영역, 5개 생활영역
  - ▶ 갈등 영역별 주요 집단 구분

## 사회통합 지표체계의 확장 가능성

생활영역		0.구성	1.소득	2.고용	3.교육	4.건강	5.주거
갈등영역 및 집단구분		구성비	불평등 극화	경제활동 실업률 비정규직	학력 교육투자	건강 의료비부담	주거비 과부담
종합	전체	-	√	√	√	√	√
계층	상/중/하층	√	√	-	√	√	√
	노동/자본	-	√	-	-	-	-
	정규/비정규직	√	√	-	√	√	√
세대	성	√	√	√	√	√	√
	연령	√	√	√	√	√	√
	문화	√	n.a.	n.a.	n.a.	n.a.	n.a.
지역 강신욱 외(2011)	광역	√	√	√	√	√	√
	수도권/지방	√	√	√	√	√	√
	영/호남	√	√	√	√	√	√

# 지역 사회통합지수를 위한 지표체계

지역단위 사회통합지표

대분류	정의	소분류	지표
안정성	기본적인 삶의 환경, 안전 수준	안전	십만명당범죄발생건수(-) 자연재해피해액 (-) 재정자립도
		건강	대기오염도 (PM10:미세먼지배출량)(-) 주관적 건강상태
형평성	경제적 기회, 기초서비스 의 형평성	경제 사회적 기회	고용률 빈곤율(-)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여성관리직공무원 비율
		필수서비스 접근성	천명당 의사수 주거비과부담가구비율(-) 학업성취도
지속 가능성	지속적 발전의 객관적 기반, 이를 이끌어 갈 주민의 참여	발전 기반	1인당 GRDP성장률 노령화지수(-) 폐기물재활용비율
		참여	지방선거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
응집성	주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통합의 수준 = 결과적인 의미의 사회통합	소속감/신뢰	지역사회소속감 이웃에 대한 신뢰
		만족감	거주지역 만족도

이현주 외(2011)

# 사회통합지수 작성을 위한 지표체계의 재구성

- 기존 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표체계 구성
  - ▶ 국가간 비교를 전제로 한 지표 선정의 보편성
  - ▶ Data에 대한 접근가능성
- 영역별 사회통합지수 작성
  - ▶ 영역의 명칭은 규범적 지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
  - ▶ 사회통합의 상태 → 사회적 결속(력)
  - ▶ 사회통합의 조건 → 사회적 안정성, 사회적 형평성
  - ▶ 일부 연구에서 지속가능성으로 분류된 지표를 안정성과 결속력 지표로 재구성
  - ▶ 각 영역별 독립성과 영역간 통일성 추구

# 지수 작성의 방법론 1.

## ■ 비교 대상

- ▶ OECD국가로 한정, 2010년 현재 34개국
- ▶ 회원 가입연도
  - 1995년: 멕시코
  - 1996년 가입국: 한국, 헝가리, 폴란드
  - 2000년: 슬로바키아
  - 2010년: 칠레, 에스토니아, 이스라엘, 슬로베니아
- ▶ 참고로 아시아 8개국(한국, 중국, 대만, 필리핀,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)

## ■ 비교 시점: 1995, 2000, 2005, 2010

- ▶ 1995년 한국 포함

## 지수 작성의 방법론 2.

### ■ 개별 지표값의 표준화

- ▶ 표준화된 지표값 =  $(\text{원지표값} - \text{최소값}) / (\text{최대값} - \text{최소값})$
- ▶ 표준화된 지표값의 해석에 주의: 1에 가까울수록 최대값 국가의 상태에 근접

### ■ 지표의 결합(가중치 부여)

- ▶ 내생적인 가중치 생성 방법, 전문가 조사 방법의 한계
- ▶ 지표별 동일 가중치 부여
- ▶ 규범적 판단에 따라 추후 상이한 방식의 지표 결합 가능

### ■ 결측값의 처리

- ▶ 비교시점에 가까운 미래의 지표값으로 대체
- ▶ 다음 비교시점까지 근접한 해의 관측치가 없을 경우, 비교 시점 값의 평균으로 대체
- ▶ 예. 1995-1999년간 관측치가 없을 경우 1995년 지표값은 2000, 2005, 2010년의 값을 평균하여 이용

### 3. 영역별 사회통합지표

# 사회적 결속 지표 1.

- 선거참여율
  - ▶ 각 시기별 대통령,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
  - ▶ 순위변화: 21('00) → 5('05) → 34위
- 선거 외 참여
  - ▶ ISS의 사회발전지수 중 시민참여지표
  - ▶ 20 → 27 → 22 → 22위
- 정치 관심
  - ▶ 국제사회조사연합(ISSP), "귀하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 있습니까? (4점 척도)"
  - ▶ 22('00) → 9('05) 18('10)
- 사회참여
  - ▶ 사회발전지수 중 봉사단체, 클럽, 지역단체의 참여 정도 지표
  - ▶ 9 → 8 → 21 → 22위
- 집단간 관계
  - ▶ 사회발전지수 중 집단간 통합 지표
  - ▶ 12 → 24 → 22 → 26



## 사회적 결속 지표 2.

### ■ 일반적 신뢰

- ▶ ISSP, "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,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(4점 척도)"
- ▶ 19('00) → 22('05) → 18위('10)

### ■ 기관 신뢰

- ▶ WVS('98, '08), ISSP('00, '10). 정부, 시민사회, 시장에 존재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
- ▶ 4 → 12 → 8 → 16

### ■ 부패인식

- ▶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(CPI)
- ▶ 27 → 31 → 26 → 26

### ■ 관용

- ▶ ISD,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 지표
- ▶ 29 → 27 → 13 → 9

### ■ 생활만족도

- ▶ OECD의 주관적 만족도
- ▶ 29('00) → 28 → 16

# 사회적 안정성 지표

- 1인당 GDP
  - ▶ 24 → 25 → 24 → 24
- 부양인구비율
  - ▶ 유년인구(-14)+고령인구(+65)/생산가능인구 비율
  - ▶ 1 → 1 → 1 → 2
- 자살률
  - ▶ 인구 10만명당 자살인구
  - ▶ 33/34('00)→33('05)→33('10)
- 1인당 CO<sub>2</sub> 배출량
  - ▶ 이산화탄소 정보분석센터의 통계
  - ▶ 18→ 22→ 17→ 29
- 기대수명
  - ▶ 27→ 26→ 22→ 14
- 주관적 건강상태
  - ▶ 좋다, 매우 좋다 응답자 비율
  - ▶ 27('05) → 29('10)

# 사회적 형평성 지표

## ■ 불평등

- ▶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
- ▶ 19 → 18 → 17 → 21

## ■ 빈곤율

- ▶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(중위소득 50% 기준)
- ▶ 29 → 27 → 28 → 28

## ■ 고용률

- ▶ 21 → 22 → 21 → 21

## ■ 실업률

- ▶ 1 → 11 → 3 → 2

## ■ 고용보호의 정도

- ▶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정도
- ▶ 11 → 18 → 16 → 18

## ■ GDP대비 공공의료비지출 비중

- ▶ 34 → 34 → 32 → 3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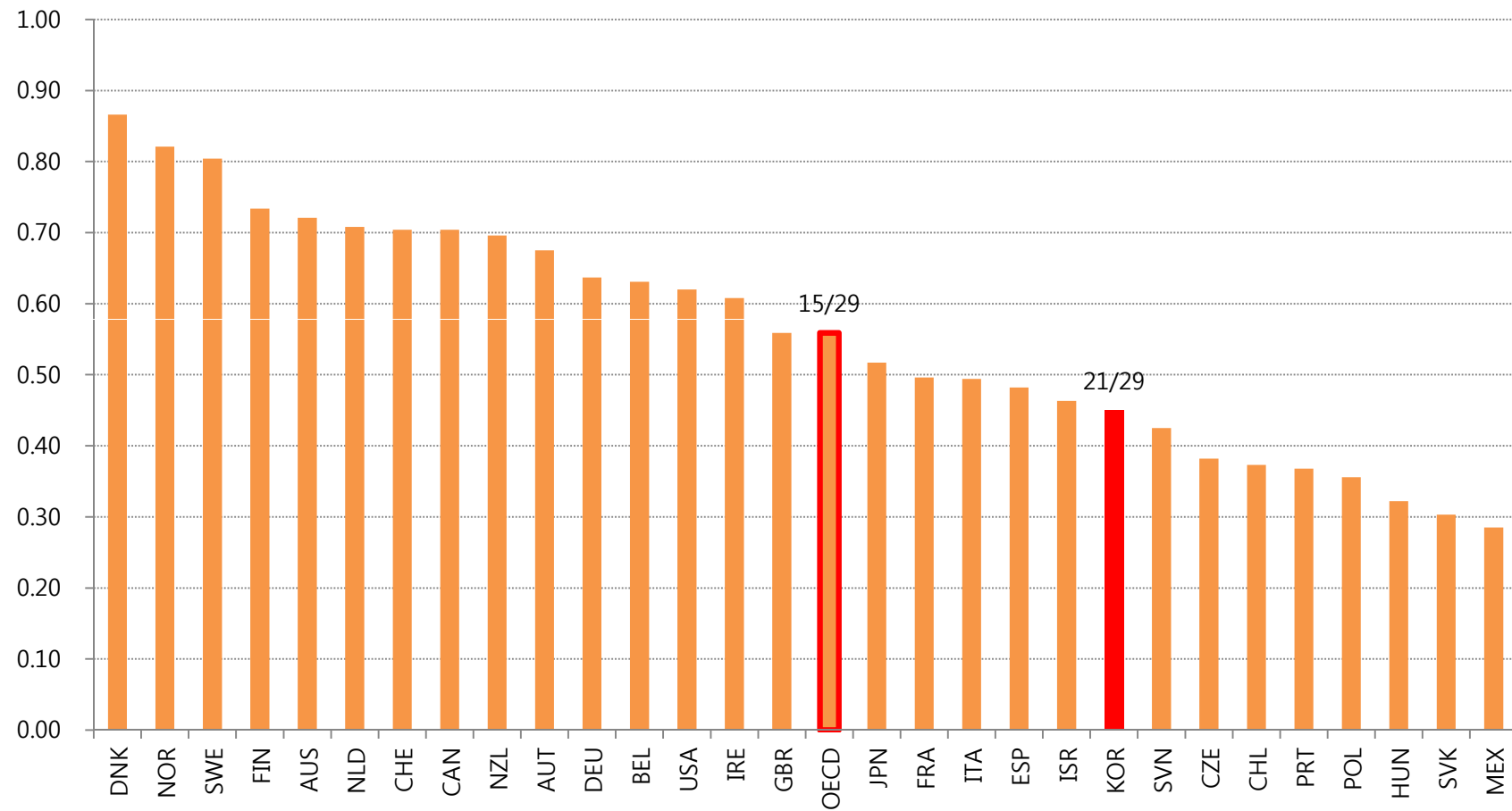
## 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비중

- ▶ 34 → 34 → 34 → 33

## 4. 영역별 사회통합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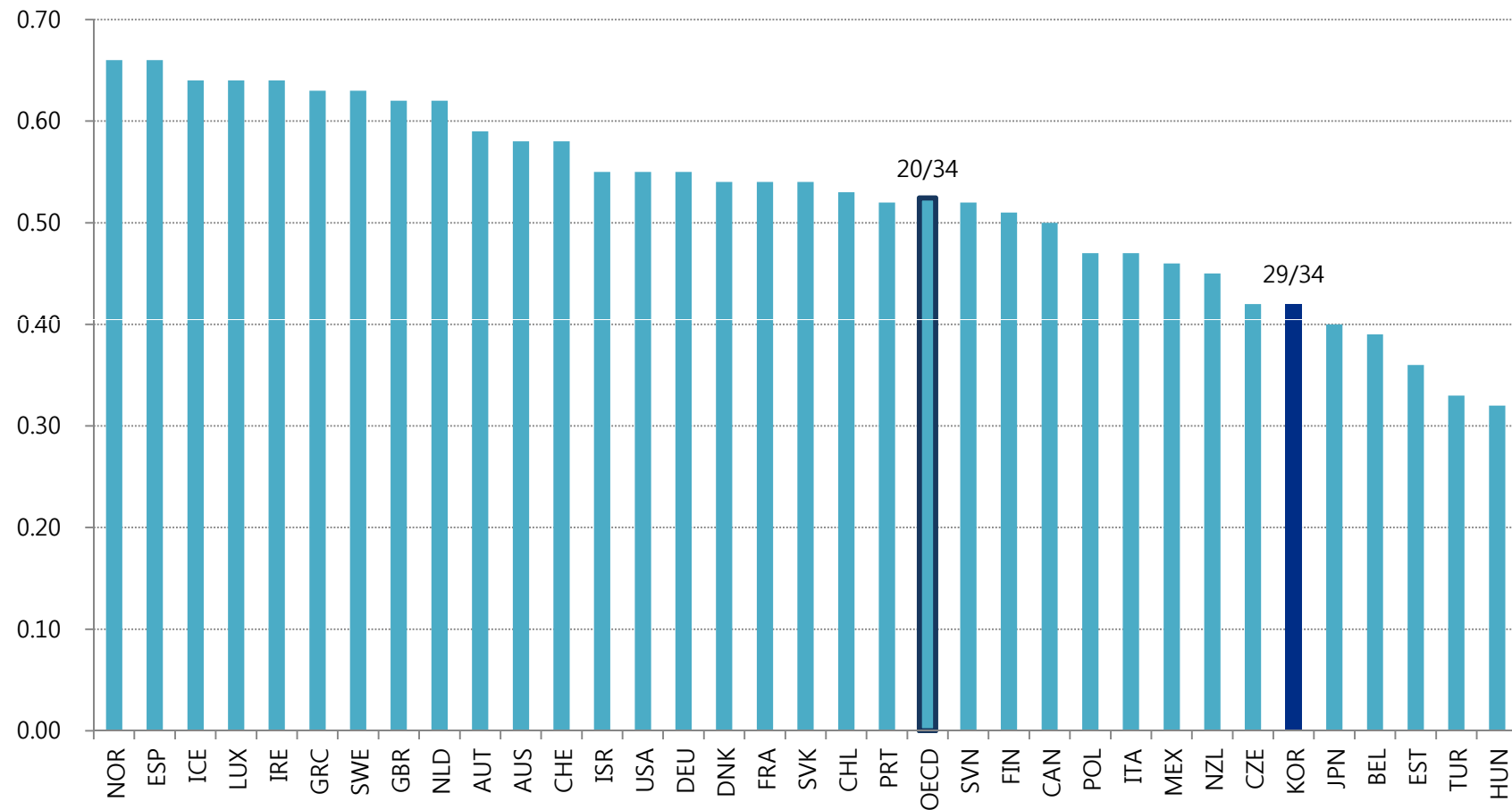
# 사회적 결속 지수

사회적 결속(201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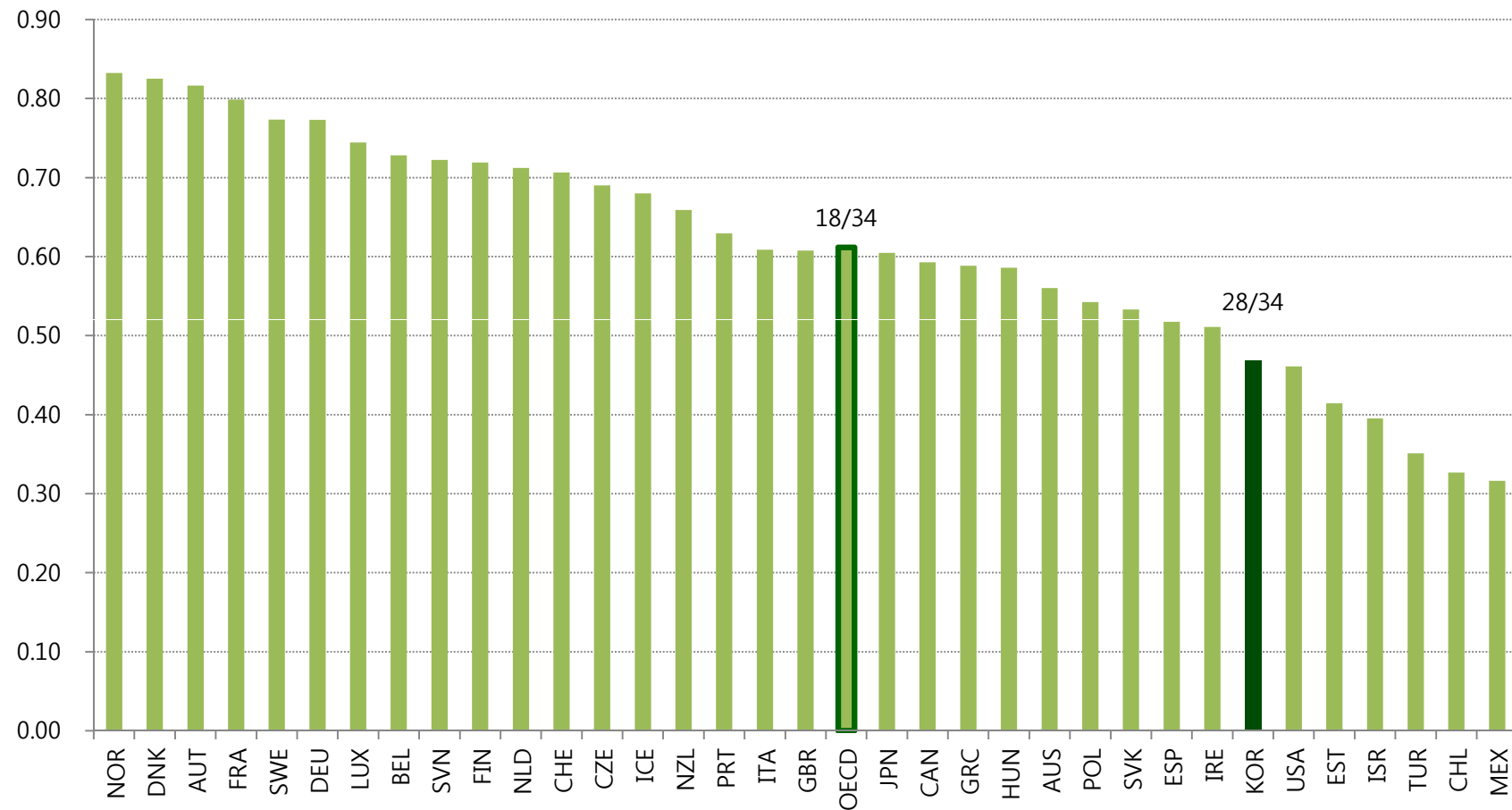
# 사회적 안정성 지수

사회적 안정성(20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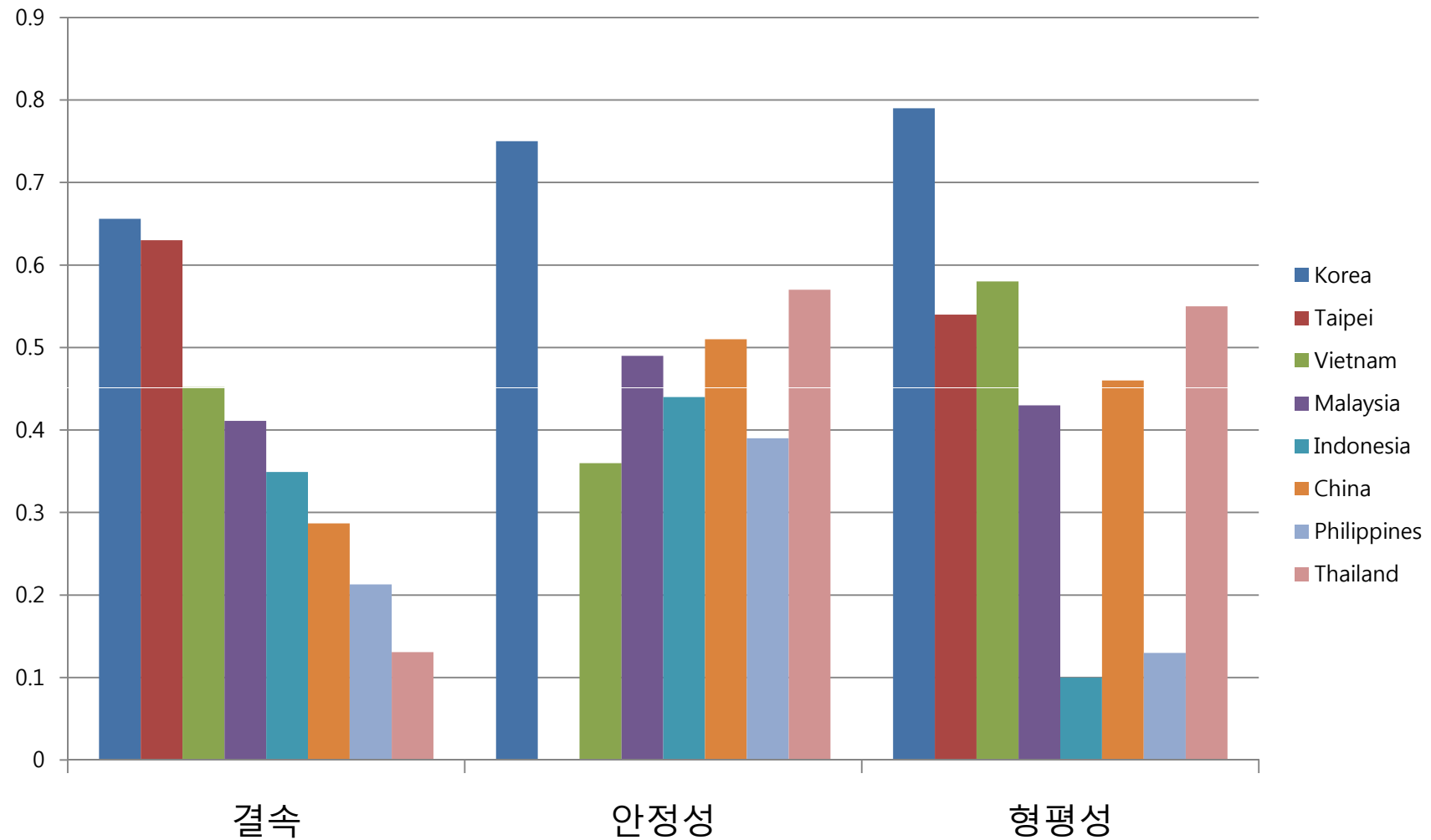


# 사회적 형평성 지수

사회적 형평성(2010)



## 참고-동아시아 국가의 사회통합지수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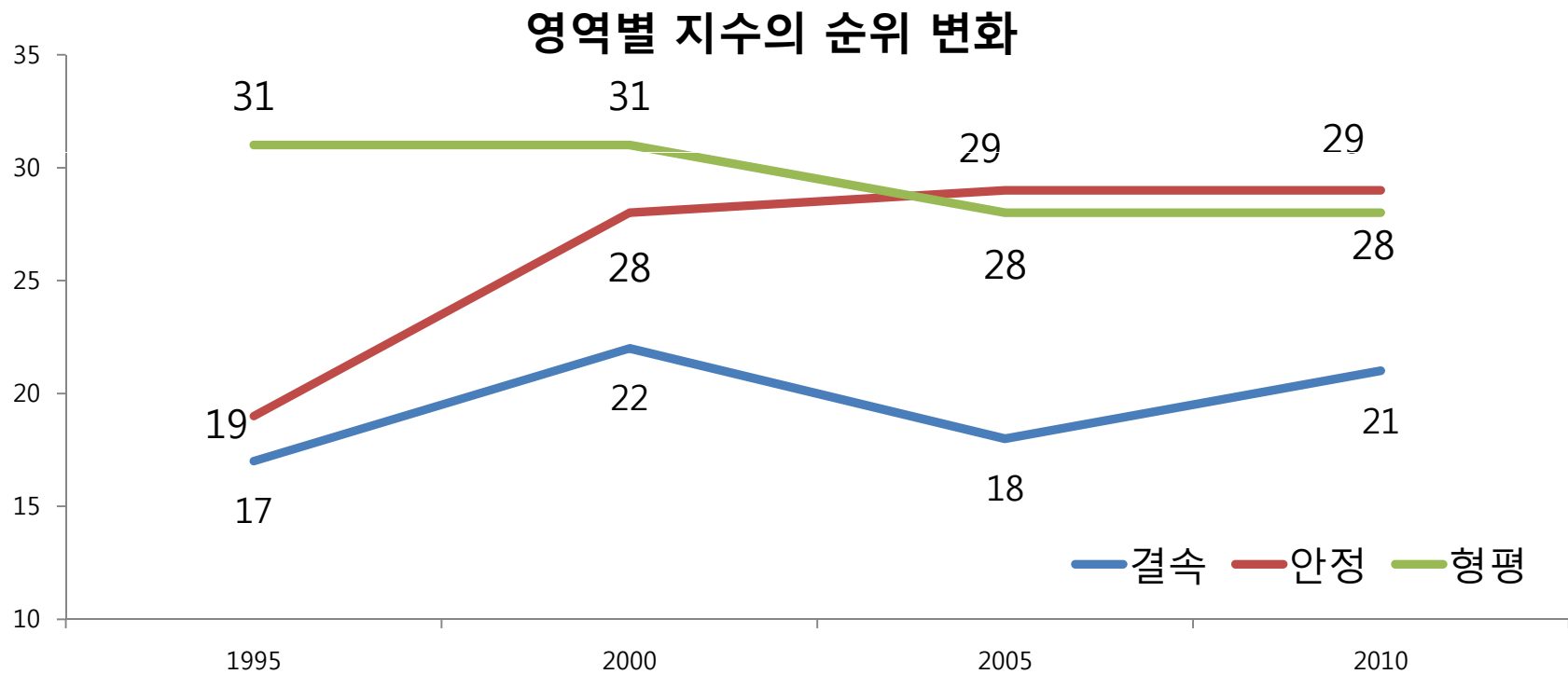




## 5. 시사점과 활용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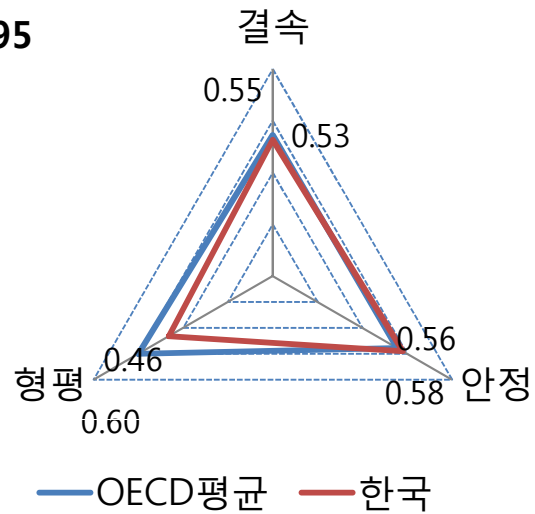
##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- 서수적 해석

- 한국의 사회통합 정도는 20위권 밖
- 형평성 지수의 개선 추이, 안정성 지수의 하락
- 최근 5년간 사회적 결속은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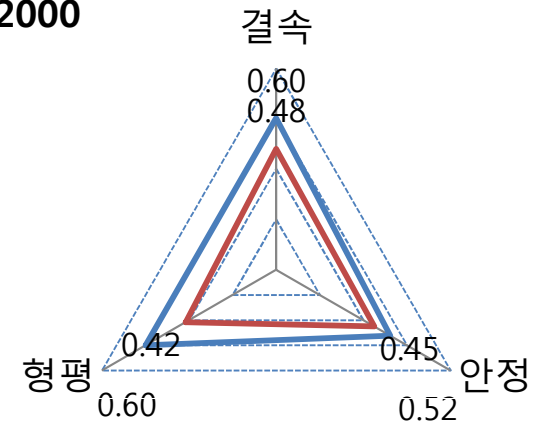


# 기수적 해석 - 사회통합 지수의 수준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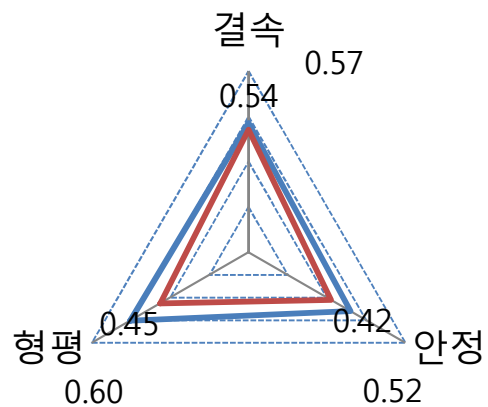
199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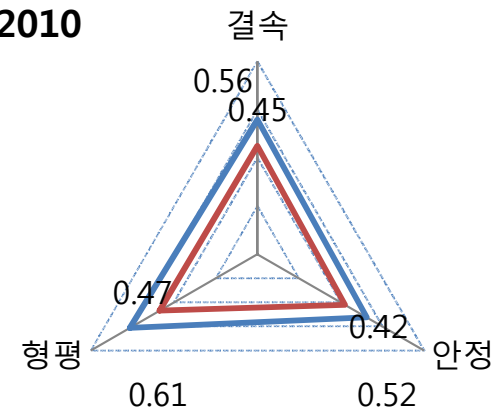
2000



20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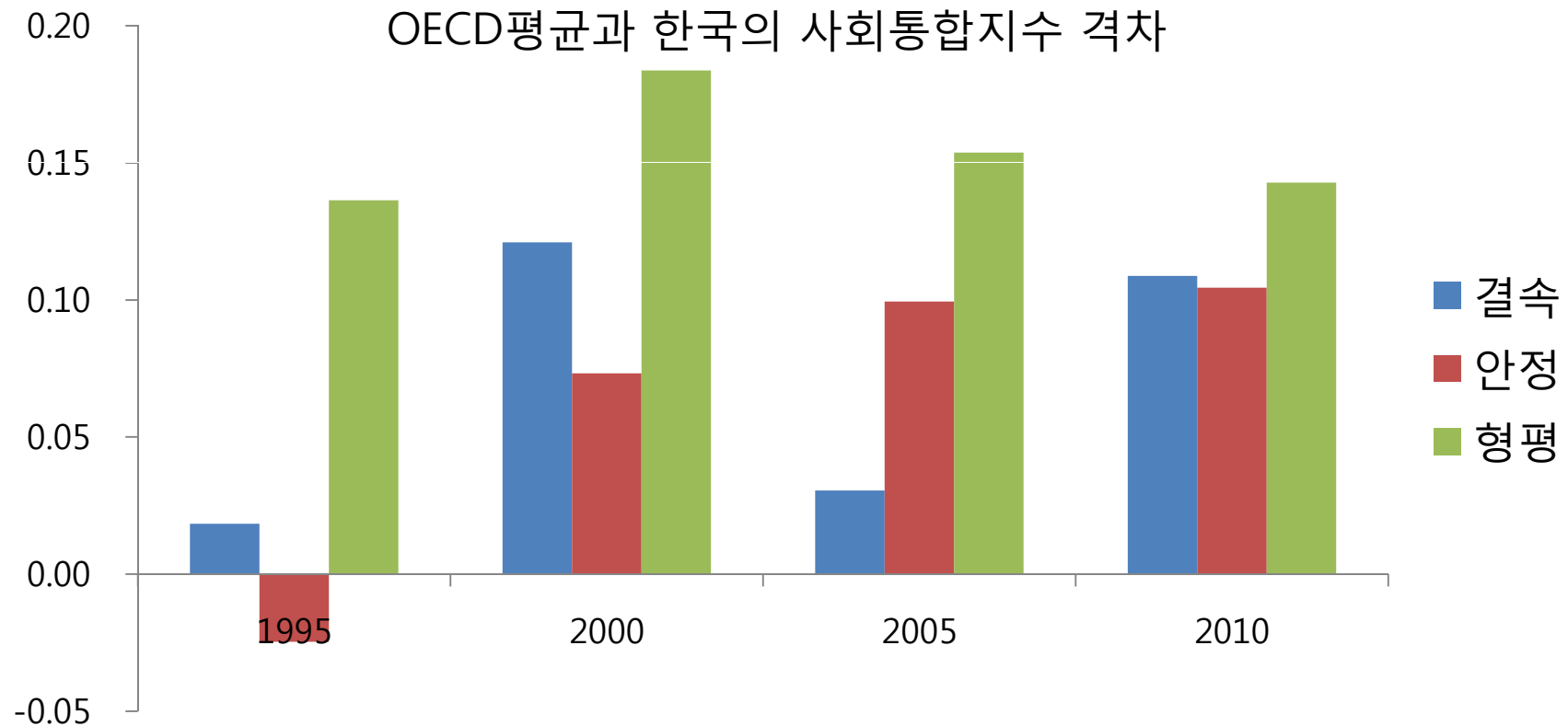


2010



## OECD 평균과의 격차 비교

- 각 지수의 시계열적 비교는 무의미. 격차의 비교는 가능
- OECD 평균과 한국의 형평성 지수 격차는 감소 추이
- 안정성 지수의 격차는 점차 증가



# 사회통합지수의 활용과 발전 방향

- 상이한 지표(체계)의 선택 가능
- 상이한 방법론의 선택 가능
  - ▶ 비교대상의 설정: 확대된 국가군, 지역
  - ▶ 비교대상의 확대에 따른 표준화 방식의 변경
  - ▶ 가중치 부여방식에 가치판단을 반영
- 영역별 지수의 결합 가능
  - ▶ 단, 각 영역의 지표 구성이 재검토되어야
- 정부에 의한 활용
  - ▶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환기, 정책적 노력의 촉구
  - ▶ 책임성의 문제
- 문제 → 개념화 → 지표화 → 지수화의 과정이 갖는 장, 단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



# 감사합니다

